세계에 알리고 싶은 나의 후쿠시마

당협회에서는 9 월 21 일(금)에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포토콘테스트 '세계에 알리고 싶은 나의 후쿠시마' 제 1 차 심사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베트남 심사원들의 심사로 응모 수 180 점 중에서 약 40 건의 제 1 심사 통과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5 명의 심사위원은 담소를 나누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 1 점 1 점을 신중하게 심사했습니다.

※응모작품 1 부

많은 응모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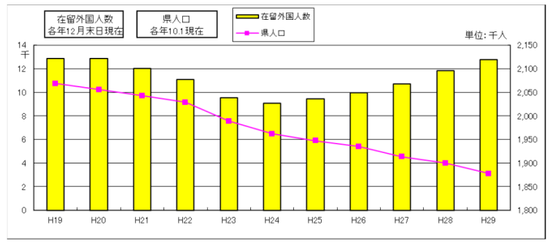
방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9 월 2 일(일) 타무라시 종합운동공원에서 후쿠시마현 종합방재훈련이 개최되었습니다. 당협회에서는 베트남출신과 아메리카 출신의 열한 분과 타무라시 국제교류협회 등의 블런티어 아홉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피소 접수부 기록 방법, 기진차 지진체험, 배식 시식 등을 했습니다. 또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대피소 설치훈련에서는 대피소 사무국 안내를 영어와 중국어, 쉬운 일본어로 번역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외국출신의 참가자는 "모국에서는 방재훈련이 없는데, 긴급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후쿠시마현 내 재류 외국인 추이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국제화 현상'에 의하면 헤이세이 29 년(2017) 12 월 말 현재, 후쿠시마현 내 재류 외국인 등록수가 12,794 였습니다. 재해 후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헤이세이 25 년(2013)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바뀌어 과거 두번째로 많은 등록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별 비율 순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네팔입니다.



(출처 '후쿠시마현의 국제화 현상')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공식 부흥 관련정보 포털사이트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에서는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9 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루투칼어) 로 발신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FIA Information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 한국어・타갈로그어・포루투칼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 : 00~17 : 15 / 목요일 10 : 00~14 : 00

☎024-524-1316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 024-524-1315 🖷 024-521-8308

✉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Fukushima NOW

おかげさまで 30TH ANNIVERSARY FIA 福島県国際交流協会

Vol.8 (2018 년 11 월 발행)

30 周年記念号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Voices from Fukushima

이번 Voices from Fukushima 는 동일본 지진 직후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멕시코 출신의 타카하시 리리나 씨(소우마시 거주)입니다.

리리나 씨는 남편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유치원 일을 도와가며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리나 씨가 생활하고 있는 하라가마지역은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 당시 리리나 씨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피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남편과 가족들, 높은 지대에 지어진 유치원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집과 친구, 지인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리리나 씨는 지진 후 한 달 만에 재개한 유치원을 돕기 위해서 2011 년 4 월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7 년 반, 당시의 일들과 지금의 심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일본에 온 것은 언제입니까?

2008 년 남편의 안내로 처음 일본에 왔습니다. 처음 본 소우마 지역은 너무 아름다워서 한 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유치원생들과 거의 매일 바다에 가서 생선구이를 먹거나 미역을 따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진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2011 년 4 월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심정으로 지냈습니까?

지진 직후, 유치원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45 명 정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오히려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대로 멕시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현지에서는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일본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는 남편의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가족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방사선을 많이 걱정하셨고 일본에 가는 것도 반대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제 의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지진 재해 후의 소우마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눈 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슈퍼, 빵 가게, 이발소… 제가 기억하던 광경이 없어져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어를 거의 할 수 없었지만, 곧바로 유치원 일을 도우며 원생들과 놀아 주었습니다. 재해 직후의 아이들은 충격과 긴장 때문인지 표정이 어둡고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쓰나미를 흉내내는 놀이가 주된 놀이였습니다. 이전이라면 블록으로 집을 짓는 등의 놀이를 했었는데 재해 후엔 '쓰나미쓰나미!'라며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놀이를 했던 것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피로연을 못 한 대신 2011 년 年 5 월에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들었는데요. 주위의 많은 분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당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과 친구들이 깜짝 선물로 준비해 줬습니다 유치원에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잔재가 남아있는 해변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을 올렸습니다.

-7 년 동안 리리나 씨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생각이 신경 쓰여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에 대한 것도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싫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도 숨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저는 후쿠시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후쿠시마를 알리고 싶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니까 맛있는 라면을 먹고 온천을 즐기며 후쿠시마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후쿠시마에 놀러 오세요.

-앞으로의 꿈이 있습니까?

일본 아이들은 착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 참 귀엽지만, 멕시코 아이들에 비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다른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오픈될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유치원 아이들에게 영어와 댄스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영어강사들의 볼런티어 활동

9월8일(토), 미나미소우마시 오다카쿠에서 외국출신의 영어강사 여러분들이 볼런티어 활동을 펼쳤습니다. 후쿠시마 제 일 원전에서 20 ㎞권 내에 있는 이 지역은 2 년 전에는 피난지시 해지준비구역・거주제한구역・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해지되어 주민등록세대수의 35%가 돌아왔습니다.

이 날은 후쿠시마현 이외의 야마카타현과 토치기현에서 24 명의 영어가사가 모여 대나무밭 벌채 작업을 했습니다. 매달 볼런티어에 참가하고 있는 남성의 말에 의하면, 출입이 제한된 이 지역은 무방비 상태의 대나무밭이 많다고 합니다. 성장이 빠르고 강한 대나무는 방치해 두면 주택의 벽을 뚫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는 대나무밭 벌채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후타마마치에서 재해를 입은 리더 사라존즈씨는 “여기서의 자원봉사는 2014 년부터 매월 한 번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선임 리더의 일을 이어왔습니다. 함께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실감할 때까지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인소로 대나무를 잘라 가지를 50 센치의 길이로 맞춰 정리합니다.

꿈을 향한 농업연수

「오이, 토마토, 멜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이 잎은 만지면 가려워져요!!」

미하루마치에 있는 오오우치팜은 지금까지 약 20 년 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매년 해외농업연수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오우치팜에 처음으로 필리핀 연수생 사감상파하드카심 씨가 왔습니다. 파하드 씨는 야채 재배방법과 농가 경영방법을 배우기 위해 2018 년 4 월부터 내년 2 월까지 후쿠시마에 머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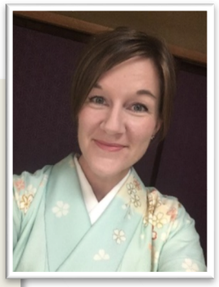
필리핀에서도 쌀과 야채를 재배했던 파하드 씨는 “일본과 필리핀의 농업은 작업 효율성이 전혀 다릅니다. 필리핀에 돌아가면, 제 농장을 경영하면서 다른 농가의 컨설턴트도 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앞으로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후쿠시마

당협회에서는 동일본지진재해・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일 원전 사고 이후 광고지 「Gyro (자이로)」의 재해부흥판인 「FukushimaNOW（구・간바로우 후쿠시마)」를 다국어로 발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념 호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후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 일곱 분들에게 「나의 사랑 후쿠시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이즈에서 6 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반다이산을 아주 좋아해서 지금까지 4 번 등산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아이즈와카마츠, 키타카타, 이나와시로 등이 보입니다.

Xin chào！（베트남어）



릴렉스할 수 있는 유모토온천을 좋아합니다. 온천가를 돌면서 카페나 족욕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가나 홀라댄스 이벤트도 개최되는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Hello！（영어）

후쿠시마현은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마다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나와시로 호수는 아름다운 경치와 비치가 있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현 분들의 친절함은 제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야마키 크로이씨
(영국 출신, 코오리야마 거주)

Hello！（영어）

다양한 가게들과 시설이 있는 코오리야마시가 좋습니다. 코오리야마 빅아이 사이언스파크, 역 앞의 분수, 규모가 큰 도서관과 쇼핑몰 등 가고 싶은 곳과 체험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현이 참 좋습니다.

프랑시스 아미모 오코티씨(케냐 출신, 니혼마츠시 거주)

Jumbo（스와힐리어）
Hello！（英語）

아름다운 자연과 온천, 그리고 인정미 넘치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따듯함이 좋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도 길에서 지나칠 때면 인사를 하는 지역주민의 친절함이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城坂愛씨 (중국출신, 스카가와시 거주)

你好！（중국어）

후쿠시마는 경치가 아름답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시라카와에는 필리핀 출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친구들도 많아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와자와 크리스티나씨(필리핀 출신, 시라카와시 거주)

Magandang Tanghali！（필리피노어）
Hello！（영어）

일, 육아, 공부, 밴드. 어느새 23 년이 지나, 후쿠시마는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후쿠시마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욱 높아지고 여기서 함께 살고 있는 모두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Hello！（영어）
Bonjour！（프랑스어）